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of Korean Household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양정선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Jung-Sun Yang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of Korean urban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2,681 households. The results of Gini's concentration coefficient showed high inequality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influence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analysed. High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s shown in high society indicating that they transmit the advantage of education to their descend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ful for welfare professionals who work in family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인적자본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 인적자본투자의 불평등성(inequality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교육비(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Corresponding Author: Jung-Sun Y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31-713-6323 E-mail: jsyang1120@hananet.net

I. 서론

인적자본 이론가(Schultz, 1961; Mincer & Polachek, 1974; Bryant, 1990; Becker, 1993)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적자본이란 기계설비 등의 물적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체내에 내재하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경험, 지식, 건강 등을 통칭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고, 인적자본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Denison(1974)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1929-69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1%였는데, 노동투입량 증가에 의한 성장률은 3.41%의 1/4인 1.32%, 자본투입량 증가에 의한 성장률은 1/7인 0.5%였으며, 경제성장의 1/4인 0.92%가 지식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 후 Kendrick(1982)은 1960-7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로서, 그 중 약 1/4인 1.1%의 경제성장이 교육을 통해 투입된 노동의 질 향상과 지식의 진보에서 성취되었다고 보고하였다(조우현, 2002). 이처럼 지식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가를 의미하며, 인적자본은 개인적인 면이나 거시 경제적인 면에서 미래의 소득 보장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인적자본 투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국 가계의 교육비를 살펴보면, 2001년 도시가계의 월평균 교육비는 189,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인 1,751,600원의 10.8%를 차지하였으며(통계청, 2002), 이 중 납입금은 76,200원, 교재 및 참고서는 26,600원, 그리고 보충교육비가 82,3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2001)에 의하면 2000년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 원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비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사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학생이 있는 가구의 72.7%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통계청, 2000). 그러나 가계가 이렇게 많은 사교육

비를 감당하면서도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대학교육의 투자가 미래의 시장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의 한계투자수익률(고졸자 대비)을 보면 1994년에 남녀 각각 13.5%, 13.8%였으며, 이는 1979년의 20.9%, 20.1%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이 5%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교육 한계투자수익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한계투자수익률로 인한 고향력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정진화, 199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간의 소득격차는 개인의 인적자본의 질의 차이에 따르며 인적자본 투자는 계층간 소득불평등 해소 및 빈곤퇴치의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여론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교육구조적 현실에서 볼 때, 인적자본 투자는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적 차원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진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저소득계층에서는 사교육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잠재적인 가계소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투자안이 되는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를 살펴보고, 인적자본 투자의 분포에 따르는 불평등성 정도를 분석하며,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 소득 증가라는 가계의 복지향상, 소득분배적 차원에서 불평등 해소, 그리고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적자본 투자 이론

Shultz(1961), Mincer & Polachek(1974), Becker(1993)는 생산성 향상 효과에 의한 물적자본 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계가 인적자본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는 미래 소득의 흐름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인간에게 내재하는 저량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이나 직장내 훈련, 노동경험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며, 정보추구 활동, 건강, 그리고 지리적 이동을 위한 지출을 통해서도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짐을 지적하였다.

Byant(1990)는 개인이 정규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가 미래의 잠재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자산의 증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부가적인 학교교육의 투자가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고용주가 정규교육을 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율로 지불한다고 가정한다면, 정규교육에 따른 금전적인 혜택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다른 대안적인 투자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윤과 최소한 같거나 높을 때 부가적인 정규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단순한 실증적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정규교육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현재의 시장 이자율에서의 금융 투자(주식, 채권, 저금계좌 등)이다. 따라서 개인은 부가적인 교육에 따르는 기대수익율을 시장의 이자율과 비교할 것이며, 보다 높은 수익율을 가진 기회에 투자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게되는 지식과 기술은 처음부터 큰 이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안정된 직업이나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준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큰 수익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개인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 학교교육 투자에서 얻게 되는 기대수익율과 비용이 동일해질 때까지만 투자하게 된다.

Blau & Ferber(1986)는 노동 생애주기를 통해 얻게 될 학교교육의 총이윤과 비용을 보여주는 경험-근로소득 프로파일(Experience-earning profile)을 통해

개인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경제적 동기를 설명하였다.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상실이라는 간접적인 비용과 비교하여 총이익이 충분히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익의 평균추정치는 10-15%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Becker(1993)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수익이 다른 투자안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형적인 대졸자와 전형적인 고졸자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를 백인 남성으로 국한시켰을 때, 다양한 “능력”에 따른 조정 후에 대학교육의 개인 수익율이 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와 비교하여 대졸자가 더 높은 소득을 얻게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더 높은 능력, 야망, 건강,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성공한 부모의 덕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 및 관련 속성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설명할 뿐이다.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다루는 인적자본론은 장기의 노동공급, 소득분배, 경제성장 그리고 고용안정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지닌다(조우현, 2002). 첫째,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 특히 교육투자는 특정 용도에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장기적인 힘이다. 예컨대 특정직업(전문기술직, 관리직, 숙련기능직 등)의 노동시장의 배후에는 특정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시장이 존재하며, 이들 교육 및 훈련시장에서의 투자결정은 특정직업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적자본론은 장기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소득분배에 있어서 인적자본론은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개인의 인적자본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빈곤퇴치 및 개인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처방으로 정부의 교육투자의 증대를 정당화 한다.

셋째, 인적자본론은 교육증대가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경제성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와 인적자원개

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넷째,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창조적인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경제의 특징을 지니게 되고, 지식경제에 필요한 기술·지식·정보·숙련 등은 교육제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인적자본 형성이 없는 개인은 빈번한 실업과 장기실업을 경험할 것이므로 사전 실업대책으로써 교육투자가 중요시 된다.

인적자본 이론가들은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 때문에 부가적인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자녀의 지적발달과 함께 정서적 발달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외에 가정에서 자녀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성장은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경험 및 여가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장난감과 학습보조 재료 및 설비 등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그밖에도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 양육 및 건강유지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가정의 자원분배는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성희, 1996).

2. 인적자본 투자 관련연구

자녀에 대한 지출은 부모의 소득과 선호, 자녀수 및 질에 대한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의 복지는 이러한 지출, 가족에 대한 평판과 가족간의 관계, 고유한 가족문화에 의해 전수된 가치와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우수한 가족환경을 지닌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투자된 부가적인 시간과 우수한 문화 및 유전자를 보유함으로써 그들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Becker, 1981).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국내의 실증적 분석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화폐의 지출·소비 또는 양

육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가계에서 지출하는 여러 비목 중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이다(김시월, 1998; 대우경제연구소, 1995; 양세정·이윤금,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허경옥, 1997 등). 한편 교육비 지출을 특히 인적자본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이윤금, 1997; 정영숙, 1996 등), 이들 연구가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으나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한국가계의 특수한 교육열과 과중한 교육적 부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투자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의 경우 높은 유관성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64.2%가 교육교양오락비가 우위적인 소비유형에 속하였으며, 50대가구는 40대 가구보다 다소 낮은 44.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4, 5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유형을 보여주었다. 가구주 성별 역시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편모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에 비해 인적자본 증진을 위해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버지 또는 남편의 부재가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가계소비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해석된다(이윤금, 1997).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교육비지출 형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주인숙·양세정, 1997)와 가장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지출에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할애한다는 결과가 있다(이윤금, 1997). 이밖에도 가구주 직업이 교육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희, 2000). 주부의 취업 상태 또한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주부의 취업유무는 자녀양육을 위한 금전비용 중 자녀양육 대체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연, 1995).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록 교육교양오락비 지출비중이 커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 또한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도시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교육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 역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계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침체됨에 따라 교육비 지출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주인숙·양세정, 1997). 가계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Bryant, 1990). 자녀수는 인적자본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는 증가하였고(Lino, 1990; 문숙재·김성희, 1995), 자녀 한명당 지출되는 비용은 감소하였다(Becker, 1993).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분포에 따른 불평등성은 어떠한가?

셋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1년 도시가계조사로서, 이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가계부기장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2001년 월평균 5,141가

를 매월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본 투자분석에 목적이 있으므로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계 중에서 무자녀 가계와 막내자녀 연령이 29세 이상인 가계를 제외한 2,681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을 29세를 기점으로 제한한 이유는 20세 이상인 대학교육에서부터는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선택이 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는 대학원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이 취업전의 약 30세를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었다.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는 자녀에 대한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통해 분석하였다. 총교육비는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통계청, 2002)로서, 본 분석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납입금(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통계청, 2002)로서, 총교육비에서 공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납입금(유치원은 비해당)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사교육비로 분석하였다. 즉 유치원 납입금, 각종 교재 및 부교재 구입비, 과외학원비를 포함한 각종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등의 합산으로 산출하였다.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된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 및 지출대비 투자비율을 평균값 및 4분위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투자 분포의 불평등성은 Gini 계수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부인취업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자녀수, 가계소득을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30대를 준거집단으로 가변수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변 수 | 정의 및 측정 방법 |
|---------------------|--|
| 인적자본투자 | |
| 총교육비 |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지출비용(월) |
| 사교육비 | 총교육비에서 공교육비 ¹⁾ 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용(월) |
|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 |
| 가구주 성별 | 1=남 0=여 |
| 가구주 연령 | 1=29세 이하 2=30~39세 3=40~49세 4=50~59세 5=60세 이상 |
| 가구주 교육수준 |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이상 |
| 가구주 직업 | 1=관리전문직 2=준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직 5=노무직/기타 |
| 배우자취업유무 | 1=취업 0=비취업 |
| 거주 지역 | 1=서울 0=기타 |
| 주택소유형태 | 1=자가 0=전세 및 기타 |
| 가족형태 | 1=확대가족 0=핵가족 |
| 자녀수 | 자녀수(명) |
| 가계소득 | 월 평균 가계소득 |

1)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

는 고졸을 준거집단으로, 그리고 직업은 통계청의 분류에 근거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로 나누었으며 사무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구주 성별, 부인취업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는 가변수화하였으며, 자녀수와 가계소득은 연속변수로 사용되었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Tolerance 0.1을 초과하고 VIF 값이 10미만으로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해 2개의 최종 회귀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본의 86%가 남성가구주 가계였으며, 30-40대가 74.56%를 차지하였다. 가구주 학력의 경우 고졸자가 47.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은 노무직/기타, 서비스직,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한 맞벌이 가계는 표본의

27.68%였고, 서울지역 거주가계는 16.6%였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69.45%로 나타났으며, 88.85%의 가계가 핵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평균 자녀수는 1.89명이었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2,286천원으로 나타났다.

2.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

가계가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로 지출하는 액수 그리고 가계의 소비지출 중 이러한 인적자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총교육비는 월 평균 306,795원이었으며 이중 사교육비는 월평균 171,577원으로, 총교육비의 약 56% 이상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국적 조사자료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평균 178,042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여정성, 2000). 하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구는 월평균 17,850원과 4,800원을 각각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로 투자한 반면, 상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구는 356,545원을 총교육비에 265,000원을 사교육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 평균 소비지출 중 인적자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의 15.4%를 총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범주형 변수 | 빈도(N=2681) | 백분율 | |
|------------|------------|-------|-------|
| 가구주 성별 | 남 | 2,306 | 86.01 |
| | 여 | 375 | 13.99 |
| 가구주 연령 | 20대 | 70 | 2.61 |
| | 30대 | 888 | 33.12 |
| | 40대 | 1,111 | 41.44 |
| | 50대 | 525 | 19.58 |
| | 60대 이상 | 87 | 3.25 |
| 가구주 교육수준 | 중졸이하 | 564 | 21.04 |
| | 고졸 | 1,276 | 47.59 |
| | 전문대졸 | 205 | 7.65 |
| | 대졸 | 540 | 20.14 |
| | 대학원 이상 | 96 | 3.58 |
| 가구주 직업 | 관리전문직 | 298 | 11.12 |
| | 준전문직 | 267 | 9.97 |
| | 사무직 | 228 | 8.51 |
| | 서비스직 | 529 | 19.75 |
| | 노무직/기타 | 1,357 | 50.65 |
| 배우자 취업유무 | 취업 | 742 | 27.68 |
| | 비취업 | 1,939 | 72.32 |
| 거주지역 | 서울 | 445 | 16.60 |
| | 기타 | 2,236 | 83.40 |
| 주택소유형태 | 자가 | 1,862 | 69.45 |
| | 전세 및 기타 | 819 | 30.55 |
| 가족형태 | 확대가족 | 299 | 11.15 |
| | 핵가족 | 2,382 | 88.85 |
| 연속형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자녀수(명) | 1.89 | 0.66 | |
| 가계소득(천원/월) | 2286.035 | 1173 | |

육비로 투자하고 있었으며, 사교육비의 경우 소비지출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구는 소비지출의 11%와 0.3%를 각각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에 할당하고 있었으며, 상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구는 소비지출의 21.1%를 총교육비에, 15.8%를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3. 가계의 10분위별 인적자본 투자 분포 분석

가계의 10분위별 인적자본 투자 분포의 분석결과 는 〈표 4〉와 같다.

먼저 첫자녀의 학교등급을 기준으로 초등교육기 이하, 중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이상의 3단계로 가계를 분류하였고, 각 단계별로 인적자본 투자의 분포가 균등한지를 살펴보았다.

Gini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고불균등분배, 0.4 이상이면 중불균등분배로 볼 수 있다. 총교육비의 Gini계수를 살펴보면,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0.46, 중고등교육기에서 0.51,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 0.76로 나타나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고불균등 분배가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0.5 이상으로 나타난 중고등교육기의 불균등 상태는 많은 부분이 사교육 투자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균등 상태는 자녀가 대학교육 이상의 연령에

〈표 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및 지출대비 투자비율 실태

| 항 목 | 25% | Median | 75% | Mean | S. D. |
|-------------------------|--------|---------|---------|---------|---------|
| 인적자본 투자 | | | | | |
| 총교육비(원/월) | 17,850 | 169,500 | 356,545 | 306,795 | 589,396 |
| 사교육비(원/월) | 4,800 | 110,450 | 265,000 | 171,577 | 212,573 |
| 지출대비 투자비율 | | | | | |
| 총교육비/소비지출 ¹⁾ | 0.011 | 0.107 | 0.211 | 0.154 | 0.250 |
| 사교육비/소비지출 | 0.003 | 0.067 | 0.158 | 0.094 | 0.099 |

1) 소비지출: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

〈표 4〉 가계의 10분위별 인적자본투자의 분포와 Gini계수

| 10분위 | 분위별투자의 총투자에 대한 비율의 누적 | | | | | |
|--------|-----------------------|---------|---------|---------|----------|---------|
| | 초등교육기 이하 | | 중고등교육기 | | 대학교육기 이상 | |
| | 총교육비 | 사교육비 | 총교육비 | 사교육비 | 총교육비 | 사교육비 |
| 1분위 | 0.00% | 0.00% | 0.08% | 0.06% | 0.00% | 0.00% |
| 2분위 | 0.48% | 0.17% | 0.81% | 0.67% | 0.00% | 0.00% |
| 3분위 | 3.12% | 2.12% | 2.80% | 2.45% | 0.00% | 0.00% |
| 4분위 | 8.20% | 7.33% | 6.56% | 5.91% | 0.00% | 0.00% |
| 5분위 | 14.97% | 14.52% | 12.24% | 11.34% | 0.04% | 0.00% |
| 6분위 | 23.57% | 23.99% | 19.72% | 19.58% | 0.68% | 32.90% |
| 7분위 | 34.27% | 35.96% | 29.20% | 30.68% | 2.40% | 45.74% |
| 8분위 | 47.38% | 50.51% | 41.41% | 45.22% | 7.64% | 58.61% |
| 9분위 | 64.55% | 69.23% | 57.95% | 64.71% | 21.18% | 72.25% |
| 10분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Gini계수 | 0.46 | 0.45 | 0.51 | 0.49 | 0.76 | 0.44 |

해당되더라도, 수학적능력상 또는 경제적 여건상 교육 투자가 일부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과 기타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본 투자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매우 높은 불균등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의 Gini계수는 중고등교육기에서 0.49로 가장 불균등하였고, 그 다음이 초등교육기 이하 0.45, 대학교육기 이상 0.44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 투자의 불균등 상태는 대학교육 진학을 위한 직간접적인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를 살펴보면 최상위 10%의 가계가 전체 총교육비의 35.45%와, 사교육비의 30.77%를 차지한 반면, 최하위 10%의 가계에서는 인적자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교육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위한 보충 교육 및 각종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육열이 과도하여 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구조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도 일부 저소득층은 예외로 작용하며, 사교육이 사치재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고등교육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되는 가계가 전체 총교육비의 58.59% 사교육비의

54.78%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계가 지출하는 총교육비의 약 32배, 사교육비의 약 82배에 해당되는 분포로서 계층간 심한 불균등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상위 10%의 가계에서 총 교육비의 78.82%를 차지 하고, 사교육비는 27.75%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시기의 교육적 투자는 일부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공교육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 투자의 불평등성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인적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소득을 위해 투자하게 되나, 저소득층에서는 그러한 투자행위가 아주 미약하여 자녀의 잠재적 미래 소득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소득계층간 격차가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총교육비에 대한 분석을 보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총 교육비는

<표 5>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인적자본 투자 | | | |
|------------------|----------|----------------|----------------|----------------|----------------|
| | | 총교육비 | | 사교육비 | |
| | | Parameter Est. | Standard Error | Parameter Est. | Standard Error |
| 가구주 성별(여성) | | -25852** | 9687.35 | 20041*** | 3170.65 |
| 가구주 연령 (30대) | 20대 | -30980 | 20678 | -72937*** | 6767.83 |
| | 40대 | 160516*** | 7806.26 | 14283*** | 2554.97 |
| | 50대 | 117706*** | 10197 | -137590*** | 3337.59 |
| | 60대 이상 | 746.35 | 19109 | -144851*** | 6254.27 |
|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 중졸이하 | -92343*** | 9108.28 | -34654*** | 2981.12 |
| | 전문대졸 | -2757.09 | 12696 | 20968*** | 4155.49 |
| | 대졸 | 11891 | 9746.75 | 39622*** | 3190.09 |
| | 대학원 이상 | 38914* | 19696 | 75019*** | 6446.60 |
| 가구주 직업 (사무직) | 관리전문직 | 61978*** | 15278 | 13729** | 5000.41 |
| | 준전문직 | 20797 | 14816 | 20273*** | 4849.36 |
| | 서비스직 | -26998* | 13394 | -11427** | 4383.79 |
| | 노무직/기타 | -32437** | 12449 | -21813*** | 4074.66 |
| 배우자취업유무(비취업) | | -19332** | 7256.91 | -4524.75 | 2375.17 |
| 거주지역(서울이외 지역) | | 26274** | 8638.64 | 43668*** | 2827.41 |
| 주택소유형태(무주택) | | 56962*** | 7622.34 | 42080*** | 2494.78 |
| 가족형태(핵가족) | | -52500*** | 10162 | -8721.31** | 3326.01 |
| 자녀수 | | 113246*** | 4956.39 | 51216*** | 1622.22 |
| 가계소득 | | 53.09*** | 3.25 | 27.39*** | 1.06 |
| | 상수 | -99225*** | | -6947.72 | |
| | R square | 0.0753 | | 0.2385 | |
| | F-value | 137.75*** | | 529.85*** | |

*p < .05 **p < .01 *** p < .001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남성 가구주에 비해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준거집단인 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가 유의미하게 총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이는 자녀의 학교 등급에 따른 효과로서 중고등교육기와 대학교육기에 총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가 중졸 이하의 학력일 경우는 준거집단인 고졸집단에 비해 총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문대 및 대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총교육비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사무직 가구주에 비해 총교육비의 투자가 더

많았고, 사무직보다는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의 순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한 인적자본 투자의 여력과 부담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Huston(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우 유의미하게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투자에 따르는 혜택과 이득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가 취업한 가계는 비취업의 가계보다 총투자액이 유의미하게 적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맞벌이 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필

요에서 비롯되는 취업동기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적자본 투자 수준이 비맷별이 가계에 비해 떨어짐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방보다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총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지역이 교육비 지출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윤금,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핵가족일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총교육비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형태와 같은 경우는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에서 자녀중심의 지출과 투자 성향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한편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총교육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남성가구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역시 남성가구주 가계의 상대적인 여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총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 가계가 교육에 대한 열성이 높더라도 선택적으로 투자대상이 되는 사교육의 경우는 투자의 여력이 남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20대에는 30대에 비해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적었고, 40대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다가 50대와 60대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육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교육비가 중고등교육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대학교육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총교육비는 증가하였지만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 역시 사교육비 투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가구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정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구주가 관리직 문직과 준전문직에 종사할 때 사무직 종사 가구주 가계보다 사교육비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직과 노무직/기타에 종사할 때 사무직 가계보다는 사교육비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다는 서울에 거주할 때, 주택을 소유할 때, 핵가족일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액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복지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를 고찰하기 위해 전반적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와 기간 인적자본 투자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의 불평등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학교등급이 올라갈수록 총교육비의 분포는 고불균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교육기의 불균등 상태는 많은 부분이 사교육 투자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진학기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불균등 상태는 자녀가 대학교육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수학능력상 또는 경제적 여건상 교육 투자가 일부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과 기타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본 투자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하나의 투자안으로서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자녀의 잠정적인 미래소득을 위해 투자하게 되나 저소득층에서는 그러한 투자가 아주 미약하여 자녀의 미래소득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후생적 복지정책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뿐 소득계층간 격차가 완화되기 어려운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충교육비 투자의 경우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교육비 투자의 경우 부인취업유무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충교육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사교육비 투자는 남성이 가구주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적어 선택재로서의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인적자본 투자가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고 관리전문직에 종사할 때 인적자본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적 투자에 따르는 혜택과 이득이 세대를 이어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계는 비맞벌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필요에서 비롯되는 취업동기와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핵가족일 때, 자녀수가 많을 수록,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록 자녀중심의 지출구조, 즉 인적자본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적 투자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은 자녀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이 계층간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 투자의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소득분배적 차원에서 계층간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저소득층 가계가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복지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자녀의 학자금 보조 형태로서의 피고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저금리의 장기상환 학자금 용자와 같은 금융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용자 편익이나 학자금 용자와 같은 금융제도는 대체로 영세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접근이 용이한 제도가 되

지 못한다. 대학교육 이상의 인적자본 투자를 원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적 후원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인적자본 이론은 인적자본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실물자본투자의 사회적 수익률보다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의 예산할당을 보다 확대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자원배분이 될 것이다.

둘째, 활성화되어 있는 사교육시장을 전면 폐쇄시키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공교육의 기능이 단시일 내에 조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은 더 많은 교사의 충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할 것이며 현재의 보충학습 형태처럼 공식적인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양질의 교육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공교육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전개할 수 있는 개인 및 민간 단체들의 설립이 장려되며, 이들의 활성화를 정부가 재정적 보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공교육 보조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수행은 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맡는 제도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자녀도 깊이 있는 예체능 교육 및 감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흥미를 발전시킬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 교육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사한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투자를 자녀의 교육적인 투자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보았듯이, 인적자본 투자는 개인의 일생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결정이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개인과 국가적 측면에

서 보다 바람직하다. 직업적 훈련 내지 재교육을 통한 개인의 생산성 향상은 가계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인적자원 투자이다. 후세대를 위한 가계의 복지향상은 잠재적인 미래의 시장소득을 향상시키는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서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희(2002).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53-72.
-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안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배무기(1999). 노동경제학. 경문사.
- 이윤금(1997).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안가정학회지, 35(4), 229-241.
- 이준구(1999). 미시경제학. 법문사.
- 정순희(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소비 지출 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08.
-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정진화(1996).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 조우현(2002). 노동경제학. 법문사.
- 주인숙, 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5(1), 277-290.
- 통계청(2002).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2000).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
- Blau, F. D. & M. A. Ferber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 - Hall.
-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G. (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labor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36-254.
- Huston, S. J. (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Lazear, E. P. & Michael, R. T. (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ncer, J. & Polachek, S. (1974).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576-588.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2003년 3월 26일 접수, 2003년 5월 21일 채택)